

# 사회적 공백기에 난무하는 '사이비' 출판물들

## 건강술과 풍수지리설, 예언서와 고조선 관련서 등 서점마다 즐비

정경희

언론인·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까마귀 한 마리에 30만원이라고 한다. 신 경통에 좋은 약이 된다고 해서 값이 비싸다는 얘기다. 그나마 까마귀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몸에 좋다고 마구 잡아먹는 바람에 씨가 마를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불과 20여년 전만 해도 들판을 까맣게 덮었던 까마귀를 '몸 보신' 좋아하는 한국사람들이 마구 잡아먹은 것이다.

### 불로장생술과 풍수지리설

아마 지구가 생긴 이래 한국사람처럼 게 걸스럽게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없을 것이다. 골짜기의 개구리나 뱀이 멸종지경이요, 뱀을 먹다 못해 동남아에 가서 코브라탕을 먹고 온다. 곰쓸개의 신도(信徒)들은 가짜 곰쓸개를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온다. 희귀동물치고 먹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건강에 관한 책들이 많다. 얼핏 보기에 의학이나 생리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의학도 아니고 생리학도 아니다. 엇비슷하다는 뜻에서 '의사(擬似) 과학'이요, 일종의 '건강술'이다. 그 뿌리는 2천년전 신선술(神仙術)에 있다.

불과 한 세대의 눈 깜짝할 사이에 먹고 살 만큼 된 한국은 지금 '의사과학'의 홍수 속에 빠졌다. 현대판 불로장생술인 건강술과 비슷한 현상으로 '풍수지리설'이 있다.

풍수지리설은 93년에서 94년에 걸쳐 이 강산을 뒤덮는 듯했다. 누구 조상의 무덤이 어떻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누구누구는 처가 집 어른 무덤 덕분에 권세를 잡았고, 김일성의 조상 무덤을 보니 김일성이 곧 죽겠다더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가 됐다. 김일성이 정말 죽자 "그것 보라"가 됐고, 풍수지리설의 불씨였던 책이 장안의 베스트셀러다.

또 풍수지리설이 과학인가 미신인가 하는 논쟁이 붙었다. 풍수지리설은 후삼국시대에서 고려초에 걸치는 동안 우리 문화를 한 발 전진케 한 진보적 사상이었다. 얼핏 보기에 과학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은 극소수 천재의 영감(靈感)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신비스런 주문(呪文)이 아니다. '좌청룡·우백호와 주산(主山)·안산(案山), 그리고 명당'이라는 지형(地形)배치가 기본법칙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의사(擬似)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불로장생술이나 풍수지리 같은

신비의 비술로 '나 한몸'

잘되기를 꿈꾸는 이들 앞에

서점마다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사이비 책들을 즐비하게

꽃아 놓고 있다. 신들린 여성의

예언바람은 그 압권이다.

18세기 전만 영조 때의 인물인 도암 이재(陶菴 李穡)는 "풍수설에 빠지지 말라"는 정자(程子)의 경고를 인용하고 있다. "묘지를 구하는 것은 지질(地質)의 좋고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이요, 음양가(陰陽家)가 말하는 화복(禍福)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다. 조상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일신의 이익"을 구한다면 터무니없는 미신일 뿐이다.

풍수지리설에 이어 '신(神)들린' 예언자가 나와 또다시 세상의 바람을 탔다. 김일성의 죽음과 삼풍백화점 붕괴를 쪽집게처럼 예언했다는 여성이다. 김일성의 죽음과 삼풍백화점 붕괴에 이어, 올해엔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로 바뀌고 북한의 김정일이 망명길을 떠나게 되리라는 예언이 남아 있다.

신들린 예언자라면 쉽게 말해서 '점술가'요, 듣기 거부할지 모르지만 '점장이'라고 하는 복술가다. 지난 95년에 또 한차례 대형 참사가 벌어지리하던 예언이 빚나갔는데도 이 여성의 예언은 아직도 세상의 화제다.

세상이, 특히 정치적 질서가 예측가능성을 잃을 때 사회는 일종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된다. 우연일지 몰라도 지난해부터 신들린 여성바람은 6월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뜻밖의 참패를 당한 뒤 일련의 정치적 사태와 시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건 세대교체론과 정치권의 구린데를 폭로하겠다는 일방적 '정치권 사정(司正)' 으름장이 정치 공백을 만든 것이다.

한 시대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



'과학'을 표방한 사이비 출판물들이 독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보기 위해 《정감록(鄭鑑錄)》 같은 비록을 읽던 상황, 그 정치적 공백과 같은 상황이다. 왕조의 교체가 임박했다는 위기설이요 예언서다.

《정감록》이 언제 지금 전해진 것과 같은 형태로 형성됐는지 확실치는 않다. 조선왕조 후기, 아마도 19세기가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워볼 수는 하다.

그러나 60년대에 외국인들이 싸늘이하다 시피 사가고, 남은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기 전까지 서울 인사동의 헌 책방에 나돌던 《정감록》은 대개 1920년대 전반기나 1945년 해방직후에 출판된 것들이었다. 3.1운동의 격동을 치르고 난 뒤, 그리고 일제 강점이 무너진 뒤 사람들은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한 채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에서 찾았던 것이다. 신들린 여성의 예언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상황은 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정감록》이 읽히던 때의 심리적 상황과 비슷하다. 다만 오늘의 세대에게는 《정감록》보다 신들린 여성의 예언이 호소력을 갖는다는 게 다르다.

### '사이비 과학' 부추기는 출판물

이러한 현대판 '정감록현상(現象)'도 과학보다는 '그 옛날'로 돌아가려는 복고풍의 문화적 과거회귀현상이다. 건강술이나 풍수지리설과 같은 맥락이다.

비슷한 현상을 '고조선(古朝鮮)붐'에서도 볼 수 있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와는 거리가 먼 가상소설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그

림 그리듯 '잊혀진 대제국'으로 만들고 있다. 고조선이 대제국이었다는 설(說)은 민족적 자긍심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과학적 근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는 신석기시대 말기나 청동기시대에 걸친 고고학적 유물이다. 그 시대의 상황을 소설처럼 엮을 만한 자료는 많지 않다. 연구논문이라면 몰라도, 소설이라고 할수밖에 없는 읽을거리의 홍수는 자칫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위험성도 크다.

'경제력 세계 13위'라지만, 한국사람들은 아직 과학과는 거리가 먼 '의사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불로장생술이나 풍수지리 같은 신비의 비술(秘術)로 '나 한몸' 잘되지만 꿈꾸는 이기주의자들이다. 여기에 편승해서 서점마다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의사과학의 책들이 독립된 전시공간에 즐비하게 꽃혀 있다. 신들린 여성의 예언바람은 그 압권(壓卷)이다.

정치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최고 권력자도 아니요, 음양오행도 아니냐. 오직 유권자가 던지는 '한 표'가 결정한다. 정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신들린 점장이 아니라 바로 유권자 자신이다.

우리 출판이 지금도 '정감록시대'에 살고 있는 사이비과학의 범람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